

사회

시·도 교육감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 제정 가능

학교장 권한 막강해진다

교과부 '학교 자율역량 강화대책' 추진

"진보 교육감 견제 의도" ... 교육계 파장

학교장이 시·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이 추진돼 교육 현장에 심상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진보교육감 출신 교육감들의 교단 영향력을 반감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선 학교장들은 '책임경영' 강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학교 운영의 자율

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감 인가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한 뒤 시·도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포괄 규정만 있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안전·인성·체

력·학력 향상 등 성과에 사교육비 절감 노력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는 요지다.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며 특별교부금도 차등 지원된다. 우선 내년부터 각 학교의 실적을 평가해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학교장 권한 강화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마련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등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재성 광주교육 혁신추진단장은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 개정의 의도는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교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도 없다면 교육현장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남 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교장의 자율권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진보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교육 분권, 자율화 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 일부 학교장들은 정부의 정책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고교 교장은 "학교장에게 교사 전입, 전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아무런 책임·권한도 주지 않는 현실에서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또 다른 교장은 "학생 생활지도 강화와 교권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4명

향소심서도 유죄

광주교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운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향소심에서 원심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서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여 원심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 등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윤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버스정보시스템 고장 났어요"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점검관개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맷값 폭행' 최철원씨 피의자 신분 조사

물류업체인 M&M 전 대표 최철원(41)씨의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일 오후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사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한 최씨는 '돈을 주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사회

적으로 시끄러워져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피해자 유모(52)씨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넬 것인지 최씨는 '돈을 주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사회

/연협뉴스

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목포지청, 선거 앞두고 특정단체 군 예산 지원 혐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군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박우량 신안 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일 박 군수와 해병대 신안군 전우회장 조모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군수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대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관 구입비 3500만원을 지원하고 신안 비금·도초 해병대전우회 사무실·화장실 설치비 명목

으로 4000만원의 군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특정단체 군 예산 지원을 비롯한 인사비리와 업무 추진비 부담 지원 등의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은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4월 박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정신 못차린 휴가병

육군 병장이 술 취해 귀가 여성 성추행

광주서부경찰은 2일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여성을 성추행한 육군 모 부대 소속 류모(20)병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병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준전시 상태에 빠졌던 지난달 27일 새벽 4시 45분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입구 앞에서 귀가하던 김모

(여·20)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휴가 나온 류 병장은 이날 아파트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한 뒤 약 500m 가량 쫓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인터넷 사행성 게임 운영 수천만원 부당이득

PC방 주인 등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2일 인터넷 PC게임방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면서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인 김모(31)씨·사장 고모(34)씨·투자자 추모(35)씨 등 3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분 투자자 백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월 15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건물 2층에 PC게임방을 차려놓고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피서불' 게임을 설치해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쿠폰 1장당 1만원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준 뒤 게임을 마치고 남은 점수를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운영자와 단골 손님만

알 수 있도록 일반 PC게임방인 것처럼 위장 간판을 내건 뒤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제주에 침몰 해군 고속정

실종 장병 시신 2구 발견

지난달 10일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295호(광주일보 11월 12일 6면)에서 실종장병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해군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30분께 수심 35m까지 끌어올려 진 고속정을 수색하던 중 실종된 목표출신 임태삼(25) 하사와 홍창민(22) 이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함수 쪽 침실에서 발견했다.

/이종행기자 glee@연합뉴스

나원침 (8186) 김종두



금은방 절도 30대 여성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일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담해 들어가 몰래 귀금속을 훔친 황모(여·3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사정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수족관 활어 출진 중학생 '월척이다'

○홋집 수족관에서 활어를 출진한 중학생 3명이 폐쇄회로(CC)-TV에 범행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14·중학교 2년)군 등 3명은 지난달 21일 새벽 6시20분경 광주시 서구 화정동 김모(여·37)씨의 홋집 수족관에서 시가 9만원 상당의 참돔 3마리를 훔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2곳의 홋집에서 총 5마리의 참돔을 훔쳤다는 것.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이날 문이 닫힌 홋집 앞을 지나 귀가하던 중 수족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뜰채로 참돔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재미삼아 참돔을 훔친 것일 뿐 딱지 않고 버렸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한밤야서 시작하자

1학년부터 시작하자!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생 설문결과 대부분 10개월~12개월 간 편입공부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 /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2월 20일